

# 하늘반 이야기 (11월 1주~11월 2주)



월요일 소풍 조금은 힘들어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가는 차안에서부터 기분이 좋아 노래 부르는 아이들~ 월요일 오월드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타고 싶은 놀이기구도 다 타고 사파리도 바로 입장해서 동물들을 보았어요. 자주 보던 동물들 일 텐데도 신기한지 놓치지 않고 고개가 요리조리~ 점심 먹고 나서는 버드 랜드와 플라워 랜드에 갔어요. 꽃을 보며 예쁘다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며 사진 찍어달라고 포즈를 잡으며 더 찍고 싶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버드랜드에서는 플라멩고랑 앵무새는 잘 보았는데 앵무새가 날아다니니 무섭다고... 끝까지 관람을 마치고 나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11월 11일 대전오월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놀이 시간~ 요번 시간에는 가을 나뭇잎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나뭇잎을 모아모아 협동작품으로 커다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나뭇잎을 모을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커다란 물고기를 보며 뿌듯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모아 놓은 나뭇잎 중 맘에 드는 나뭇잎을 골라 손수건에 망치로 두드려 보았는데요. 다 두드리고 보니 알록달록 멋진 작품이 완성 되었습니다. (11월 12일 자연놀이)



새 중에서 가장 큰새 타조를 만나기 전에 책을 보며 타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출발했습니다. 농장에서 타조 박사님께서 타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타조 먹이 주기 체험도 했습니다. 타조 알을 직접 들어 무게를 알아보고 단단함을 알아보기 위해 알 위에 올라서 보기도 했는데 끔찍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목걸이 등 만들고 싶은 것을 골라 작품 활동을 했는데 만족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11월 14일 타조농장)